

광양서 번 돈 서울서 쓰고 '상생은 나몰라'

본사 서울 소재 기업, 세수 확보·인구 유입 도움 안돼

광양제철-지역기업 직접 계약 등 획기적 대책 필요

광양지역 일부 기업의 본사가 서울과 포항에 소재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 등록된 수백 개의 토종 업체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는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광양에 자리한 대부분의 기업은 사회환원과 상생발전 등 경영이념에 따라 지역과 상생발전이 아닌 반면 일부 기업은 20여년 간 광양에서 사업하며 이윤추구에만 전념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광양에서 경제적 수익 창출은 하지만 정작 서울, 포항 등지의 본사 중심으로 각종 행사나 회의를 열어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광양시 세수(稅收) 확보와 인구유입 시책과도 역행할 뿐 아니라 주말이면 직원들이 타지로 떠나면서 광양 도심권이 한산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S사의 경우 20여 년간 광양제철 외주사로 등

록돼 지역업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작업까지 독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안전사고도 잦아 각종 신용평가에서 하위권에 랭크되는 등 지역에서 눈총을 받고 있지만 꾸준한 외주 파트너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역 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인 일부 광양제철 패밀리사가 지위를 이용해 작은 일까지 수주받지만 실제 일은 지역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지역 토종업체가 직접 계약해 작업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택을 내놔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업체도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있지만 대기업의 규정 때문에 패밀리사로

부터 토종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갑·관 관계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지역과 상생하고 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부분별 계약규정 변경과 업체 선정 및 계약시 토종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작업을 세분화해 계약하는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광양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과 외주 파트너사간에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광양시나 광양제철 등에 각종 사업과 작업에 대한 직접 계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 등을 이유로 실제 직접계약 실적은 기대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대중골프장 체인시대' 연다... (주)더퍼블릭 운영방식 '화제'

고창CC·해남 오시아노 운영

경영 거품 제거·맞춤형 서비스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골프업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함평 다이내스티CC, 파인힐스CC, 남양주 해비추CC 대표를 역임한 이준희 대표(사진)가 이끄는 (주)더퍼블릭이다.

(주)더퍼블릭은 신개념 대중골프장 운영 시스템을 도입, 국내 골프장 운영 패러다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 토털 아웃소싱(Total outsourcing) 전문기업이다. '착한 골프장, 스마트한 골프장'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주)더퍼블릭은 고창CC(18홀·대중제)를 1호점으로 시작해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해남 오시아노CC(9홀·대중제)를 2호점으로 개장해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주)더퍼블릭은 앞으로 제3, 제4의 골프장 위탁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19년까지 전국 체인망을 50개로 확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골프장 위탁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다.

전 세계 200여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미국 골프매니지먼트사 '트루골프'를 지향하고 있다. 이준희 대표는 "국내 골프장의 문제점인 과도한 조성비와 고급스러운 운영방식, 인력 소모적인 경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기법이 필요하다"며 "골프장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 운영점이 늘어날수록 공동 예약,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체면

등의 거품을 과감히 빼고 인원을 효율화하는 원가절감 운영 시스템은 (주)더퍼블릭만의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지원비용 효율화 ▲고객·마케팅 통합화 ▲투어상품 다양화 ▲코스·서비스 표준화를 구현할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객·마케팅 통합화 부분에서는 기존 개별 골프장 개개의 마케팅 한계를 극복하고 위탁 골프장들간 통합된 마케팅을 구현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각 골프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뽕장이 잡으러 '뽕덩'

관광객들이 최근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해변에서 뽕장이 잡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뽕장이 잡기 체험행사는 오는 26일과 8월 2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전북 소식



정읍 점촌마을 40년 숙원 해결됐다

마을-논밭 호남고속도로 단절

권익위 중재로 진입도로 개설

1970년 호남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비좁게 설치된 골다리로 인해 40여년간 불편을 겪어온 정읍시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정읍시 태인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와 정읍시, 주민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는 골다리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교량에서 농경지로 드나들 수

있는 농사용 도로(폭 5m)를 1.1km 길이로 개설하기로 했다.

또 정읍시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 예정인 농사용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부지의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도로도 시가 인수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점촌마을 주민들은 1970년도에 마을 앞을 가로질러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3.3ha의 농경지와 단절됐다. 마을과 농경지를 잇는 고속도로 밑 골다리는 폭 2.5m×높이 3m 크기로 비좁은 탓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씨감자 장기저장 해드려요"

씨감자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온 큐어링(상처치유) 시설이 남원에 들어섰다.

남원시는 최근 운봉읍 화수리에서 씨감자 60t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 큐어링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300평 규모의 저온 큐어링 시설은 큐

어링 시설과 저온저장 시설로 구분된다. 수확한 씨감자는 1차로 저온 큐어링 시설에서 상처치유 및 건조조정을 거친다. 이어 2차로 3도로 유지되는 저온저장 시설에서 보관하며 감자재배 농업인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부패와 썩음을 방지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고은 시인, 오늘 '새만금 아카데미' 강의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5번째 강제가 16일 오후 2시 시청 새만금 아카데미(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을 강사로 초청해 '모국어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전쟁때 출가해 승려가 되기도 하였던 고은 시인은 1958년 시 '폐결핵'으

로 현대문학에 등단한 이래 '피안감성' 등 150여권의 시집을 펴냈으며, 팔순의 나이에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청춘 시인이다.

특히, 그가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만인보'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담긴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50년 전통의 맛 원조 나죽곰탕

곰탕	8,000	국내산(한우)
특곰탕	10,000	
수육곰탕	10,000	
육회비빔밥	7,000	
육회	30,000	
수육	중 20,000 대 30,000	

고추기름 : 국내산, 쌀 : 국내산,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나주에서 직접 전수한 맛의 명품

원조 나죽곰탕

Tel. (061) 287-8884
Mobile. 010-2631-3336
목포시 옥암동 1248-4(옥암푸르지오APT 건너편)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함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함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 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 283-2322
F (061) 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